

관중석 다시 닫힌다... 응원하는 마음은 열어 두세요



올 시즌 처음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개방됐던 지난 4일 LG와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KIA팬이 거리두기를 한 채 좌석에 앉아 물건을 건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프로야구 KIA 오늘 NC전 무관중... 프로축구 광주FC 22일 FC서울전

코로나19 확산세로 광주 야구장·축구장 관중석 이 다시 닫힌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른다. KIA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감안해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예정인 NC다이노스와의 홈경기부터 당분간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19일 밝혔다.

챔피언스필드는 전국 10개 구장 중 가장 늦은 지난 4일 시즌 첫 관중을 맞았다. 7월 26일부터 KBO리그 관중 입장이 시작됐지만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관중 입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2일 광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KIA는 4일 LG 트윈스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8-9일 NC 다이노스(7일 우천취소)전, 14-16일 SK 와이번스전 등 총 8경기를 홈팬들 앞에서 치렀다.

하지만 광주내 유흥업소발 코로나19 비상 속 전국적인 확산세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광주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지만 KIA는 정부 방역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중석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미 예매가 이뤄진 20-21일 NC전 티켓은 전액 환불된다. KIA타이거즈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이 진정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중 입장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며 "팬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강원FC전에서 처음 홈팬들과 호흡했던

광주FC도 당분간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예정됐던 FC서울과의 경기가 관중 없이 진행된다. 광주는 19일 "코로나19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22일 FC서울전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 개최하고, 팬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광주의 경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이날 구단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 전환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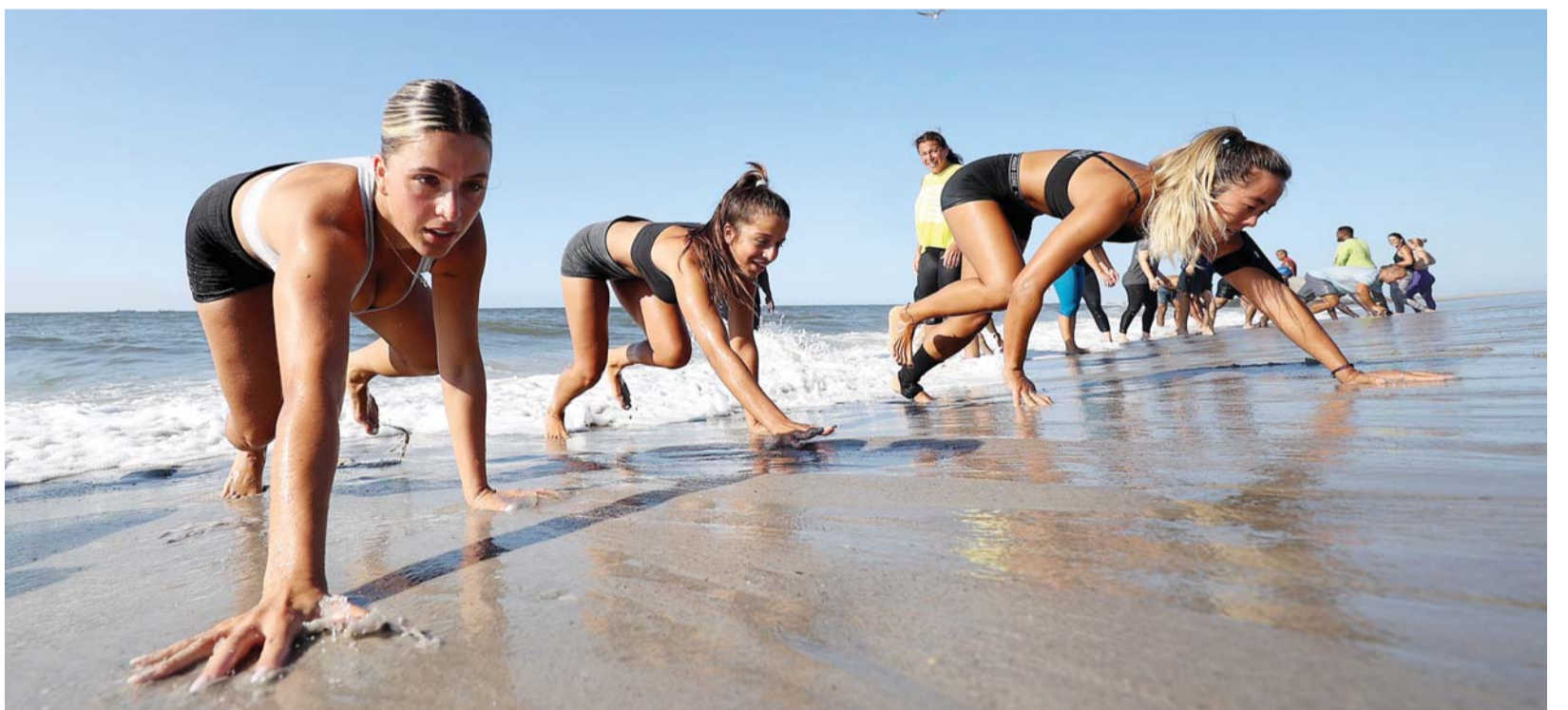
K리그는 지난 1일 관중석을 개방했다. 광주는 1일 인천, 8일 포항 원정경기를 치르면서 16일에야 처음 홈팬들을 만났다. 팬들의 성원 속에 새 구장에서 처음 팬들을 맞았던 광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조용한 경기'를 치르게 됐다. 현재 K리그에서는 지난 16일을 기해 서울·경기를 연고로 하는 서울, 수원 삼성, 성남FC 등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내려진 대전 하나시티즌, 대구FC, 충남 아산 등도 무관중 경기 전환 결정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로나19 고통분담” K리그 선수들 연봉 삭감

3600만원 초과분의 10%... 대상자 협의 후 결정

K리그 선수들이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연봉 삭감이 예상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김천 상무(가칭) 창단 가입승인 ▲마케팅, 상벌, 경기, 유소년 등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전날 연맹은 K리그 감독 간담회 및 주장 간담회를 갖고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고안은 K리그 전체 선수 중 기본급이 3600만 원을 넘는 약 64%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3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개월분 급여의 10%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지면 각 구단은 소속 선수들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권고안에 동의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잔여 기본급을 조정하는 계약변경절차를 진행한다. 김천시의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 및 가입 신청에 대한 부분은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7월 10일 군국체육부대와 김천시 간 연고협약이 체결됐고, 7월 21일에는 홈구장으로 사용될 김천종합운동장의 실사점검이 이뤄졌다. 현재 김천시는 구단 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이사회는 9월 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마케팅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이사회는 연맹 마케팅 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이외의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

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령상 금지되거나 종교·정치적 내용, 인종차별, 성차별, 음란·퇴폐, 불법스포츠투도박 등과 관련된 사업, 상품, 단체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광고물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금지광고물 규정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노출하는 어떤 형태의 물건도 설치할 수 없다. 리그공식 명칭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하게 하는 '매복마케팅(엠펙슈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사회는 상벌 규정 개정에 나서 불공정행위와 각종 범죄 등 비행위 전반기에 대한 구단의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 조항도 만들었다. 구단은 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한 경우 연맹에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는 가중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유소년 선수의 표준입단합의서 사용 의무화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프로선수계약시에만 표준계약서가 사용됐지만, K리그 산하 유소년팀에 유소년 선수가 입단할 경우에도 연맹이 제공하는 표준입단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표준입단합의서에는 유소년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단의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 선수가 구단을 탈퇴할 경우 구단에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의 산정공식 등이 포함됐다. 또 구단 간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막기 위해 타구단 유소년 클럽에 속한 선수를 원소속 클럽의 서면동의 없이 이적 및 등록시킬 수 없도록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해변이 체육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관이 줄줄이 문을 닫은 가운데 미국 피트니스 클럽 회원들이 18일(현지 시간) 뉴욕 롱비치 해변에서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큰 점수차 '3B-0S'에서 폴스윙은 금기?

MLB 샌디에이고 7점차 리드서 만루홈런...텍사스 빈볼로 응수

야구 불문율을 어겼으며 상대 팀 타자에게 빈볼을 던진 투수와 소속 팀 감독이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19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에게 1경기, 빈볼을 던진 이언 기보트에게 3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텍사스의 기보트는 재심 청구를 한 뒤 이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정상 출전했다. 기보트의 빈볼 투구 행위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텍사스는 3-10으로 뒤진 8회초 1사 만루 위기를

맞았다. 텍사스 투수 후안 니카시오는 제구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상대 팀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상대로 볼 3개를 내리던중이었다. 니카시오는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지 않기 위해 4구째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던졌고, 타티스 주니어는 이 공을 밀어쳐 만루 홈런으로 연결했다. 텍사스는 타티스 주니어가 야구의 불문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보통 야구에선 크게 앞선 경기 후반에 도루, 번트 등의 행위를 하면 상대 팀에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빈볼이 나오거나 심할 경우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지기도 한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크게 앞선 경기 후반, 제구가 흔들린 투수를 상대로 3볼에서 폴스윙하는 행위도 금지시한다. 텍사스 우드워드 감독은 타티스 주니어가 도발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니카시오를 교체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라가면서 타티스 주니어를 노려냈다. 마운드에 오른 텍사스 볼펜 투수 기보트는 상대 팀 후속 타자 매니 마차도의 몸쪽으로 공을 날렸다. 빈볼이었다. 공이 마차도의 등 뒤로 날아가 몸에 맞지는 않았다. 타티스 주니어의 폴스윙 플레이와 텍사스의 빈볼 투구는 징계 여부를 떠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메이저리그 구수원들은 타티스 주니어의 폴스윙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프로 선수가 스윙의 강도까지 조절하면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관해서다. 대다수 구수원은 야구의 불문율이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합뉴스